

개느삼



최 명 섭
임업연구원

과명 : 콩과
학명 : *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한명 : 狗苦蔘
일명 : いぬくらら

우리 나라 특산으로 강원도 양구 이북의 표고 100~300m사이에 분포하며 함경남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수목으로 필자가 1992년 개느삼의 자생지인 현지에 조사차 들렀을때 산림지역인 양구 공원이나 산림지역 내에서는 자생지를 찾을수가 없었고 한전초등학교 뒷편 산기슭 200m가량의 면적내 염소가 방목되어 있는곳에 겨우 생명유지를 하고 있었다.

대개의 콩과식물이 양지쪽에서 잘 자라듯이 개느삼 역시 양수로 60년대 후반 빨감이나

퇴비마련을 위해 산림내에서 관목이나 초본식물을 베어 사용하였을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았으나 연료의 전환으로 가지치기나 간벌이 되지 않은 상태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더 이상 자랄수가 없어 임연부로 밀려 내려와 지금의 한전초등학교 뒷편의 개느삼처럼



자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염소가 방목되는 자생지내의 상층수목은 거의 훼손되어 햇빛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다. 특히 회귀·멸종위기 식물중 양수에 속하는 식물의 훼손은 임분관리가 되지않아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 종다양성을 위해서

는 역시 숲을 무욕 관리하여 건전한 임분으로 관리하여야만 충분한 햇빛이 임내에 들어와 식물의 종이 다양해진다는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여 주는 곳이다.

생태적 특성

남한에서는 강원도 양구가 남방한계선이며 인제, 북평에 드물게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1m내외로 대군집을 형성한다. 양지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하며 내건성, 맹아력이 강하여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바닷가와 도심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하고 잘 번성한다.

형태적 특성

줄기는 종종히 곧게서서 자라며 가지는 털이 있고 검은 갈색이며 겨울 눈은 툭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고 잎의 흔적이 튀어나와 양쪽에 침 형태의 포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기수1회우상복엽으로서 길이 4~6cm이다. 소엽은 13~27개이고 타원형으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이고 밑부분은 둥글며 길이 8~10mm로 뒷면에 백색 밀모가 있으며 소엽병과 엽축



에 털이 많다. 총상화서는 길이 3~5cm로서 새가지 끝에 나와 5~6개의 노란색꽃이 5월에 핀다. 꼬투리는 길이 7cm로서 겉에 돌기가 많으며 7월에 익게 되나 남한에서는 환경조건이 맞지않아 경실되지 않는다.

희귀한 수종으로 천연기념물 제 372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희귀·멸종위기 및 특산 수종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봄철 황금색의 노란꽃이 황홀(恍惚)하게 피어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 특히 절개사면으로 햇빛이 잘 들고 척박한곳에서도 왕성하게 성장하

므로 사방지나 도로변 절개사면 녹화에 적당하다. 일반 정원에서도 꽃이 아름답고 제반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므로 식재할만하다.

다만 양수로서 햇빛을 좋아하므로 햇빛이 잘드는 양지쪽이면 척박하거나 건조한곳 그 외 장소에서도 집단적으로 식재할만하다.

남한에서는 종자결실이 잘 안되므로 분근에 의한 뿌리번식이 적당하다. 식재되어 어느 정도 안정된 나무 그루터기에서 주변의 흙을 파내고 뺀어가는 뿌리를 채취하여 10cm내외

로 잘라 일반 토양에 골을 파고 묻은다음 관수만 철저히 하면 쉽게 새싹을 튀우고 뿌리를 내린다. 너무 과습하면 뿌리 자체가 썩을 염려가 있으므로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직은 약재로 이용은 되지 않고 있지만 생물활성물질이 들어있다는 약학대에서 연구가 수행중이며 일본에서도 약성물질 추출과 용도개발에 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수행중이다. 우리의 희귀한 생물 유전자원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연구된다는 아쉬움이 크다. **조경수**